

Hong Sung Sa Ltd.

홍성사

BOOK NEWS

2002. 3·4

C. S. Lewis.

C. S. 루이스,
순전한 그리스도인!

신간 자세히 보기 2-3

이 달의 저자 4-5

새로 나올 책 6

1-2월 베스트 순위 7

고통의 문제

고통이 제기하는 지적(知的) 의문에 대한
명쾌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고통의 문제〉는 C. S. 루이스가 신학 주제를 다룬 최초의 저술로,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라는, 기독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고뇌해 온 의문에 대한 명징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과 선, 인간의 자유의지와 타락, 천국과 지옥, 인간과 동물의 고통 등 신학의 핵심 주제들에 관한 루이스의 명철하고도 따뜻한 목소리가 우리를 고통의 현장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어 간다. 이 책은 고통에 관해 사색하는 이 시대 사상가들이 공히 찬탄하는 고전(古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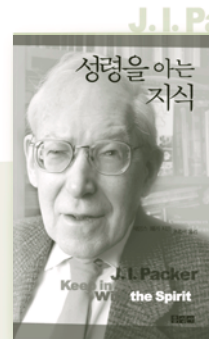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고 힘있게 쓴 책” - *Times Literary Supplement*
“한 권의 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칭송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Guardian*

▶ **신간포인트**: 3개월의 번역 기간, 5개월의 편집 기간, 세세한 원문 대조를 ‘정식 한국어판’으로, 루이스의 상식을 동반한 논증과 뛰어난 기지를 엿볼 수 있다.

▶ **독자층**: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 ‘고통’에 관해 고민해 온 모든 그리스도인

“고통이라는 적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쓴 유일한 목적은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덧붙여야겠습니다. …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 적은 인정(人情)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람이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 외에는 독자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C. S. 루이스 지음 | 이종태 옮김
민음의 글들 189 | 변형A5신 | 248면 | 양장 | 9,000원



성령을 아는 지식

세계적 신학자 제임스 패커 30년 연구와 기도의 결정판!

깊이 있다! 성령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철저히 성경을 바탕으로 쓴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이른다.

쉽다! 30년에 걸친 독서와 사색, 기도와 생활을 통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쓴 성령론을 만난다.

명료하다! 그렇게 난해하고 다양한 성령론조차 노신학자의 경건과 학문의 깊이 앞에서는 명료함을 넘어 통쾌함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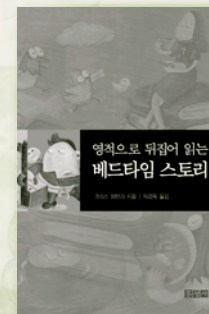
“〈성령을 아는 지식〉은 저의 30년 독서와 사색, 기도와 삶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체험으로 들어가라고 강하고 단호하게 요구한다.” - *The Alliance Witness*

“성령으로 충만한 성품을 얻도록 독자들을 격려 하는 책!” - *Christian Bookseller*

제임스 패커 J. I.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로, 존 스톱트·마틴 로이드 존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현 리젠트 칼리지 교수,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Christianity Today*)지 편집고문.

J. I. 패커 지음 | 홍종락 옮김 | 민음의 글들 190 | 변형A5신 | 416면 | 12,000원



영적으로 뒤집어 읽는 베드타임 스토리

동화를 영적으로 재해석한 유쾌한 선물용 도서!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헨젤과 그레텔, 뱀장어는 임금님 등 유명한 서양의 전래 동화 12편을 신앙의 눈으로 뒤집어 읽은 이야기. 이 책은 널리 알려진 서양의 동화를 영적 통찰력과 재치를 곁들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해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각장 시작면에는 동화의 원전(原典)을 실어 본래 이야기와 뒤집어 읽은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각장마다 일러스트가 있어 보는 즐거움이 한층 더할 것.

“나는 많은 번역본과 증보판, 의역본과 주석서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리고 나는 ‘1년 성경’ ‘1주일 성경’ ‘바쁜 이들을 위한 1분 성경’ ‘그보다 더 바쁜 이들을 위한 30초 성경’도 가지고 있노라. 그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 수 있겠느냐?” - ‘뱀장어는 임금님의 회심’ 중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셨다. 크리스 패브리님은 베드타임 스토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가 예수님보다 영감은 덜 받았지만, 그 깊이는 만만치 않다.” - 칼 토마스/칼럼니스트

크리스 패브리 Christopher Fabry, 미국 시카고의 방송인이자 작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77가지 습관>에서 뛰어난 재치와 통찰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파헤쳐 보인 바 있다.

크리스 패브리 지음 | 박경옥 옮김 | 민음의 글들 188 | 4×6판 | 양장 | 136면 | 6,000원

C. S. 루이스, ‘순전한’ 그리스도인

친구들 사이에선 ‘잭’(Jack)이라 불렸던 루이스(Clive Staples Lewis)는 1898년 11월 29일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났다. 9살 때 어머니 플로라 여사를 암으로 여인 루이스는 기숙사가 딸린 학교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커크패트릭이라는 가정 교사에게로 보내졌는데, 엄격한 이성주의적 무신론자였던 그에게서 엄밀한 논리적 사고 훈련을 받았으며, 본래 성공회 배경을 가졌던 루이스는 이 무렵 확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다.

옥스퍼드 재학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중위로 참전한 루이스는 엉덩이에 영국군 포탄의 파편 조각이 박히는 부상을 입어 요양캠프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쟁이 끝나자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했다. 그리고 장교훈련 기간 중 알게 된 친구 ‘페디’에게 했던 약속대로, 그가 전사하자 그의 어머니 무어 부인을 평생 보살폈다.

1923년 옥스퍼드를 세 부문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잠시 철학을 강의했고, 1925년부터 모듈린 대학에서 30여 년간 영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1954년부터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 교수로 재직했는데, 이때 뛰어난 영문학 학술서를 여러 권 저술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접근을 늘 의식하고 있던 루이스는, 1929년 어느 날 밤 마침내 신 앞에 항복하게 되는데, 이날의 회심은 ‘복음적 신앙’으로의 회심이라기보다는 ‘유신론’으로의 회심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31년 어느 가을 밤 옥스퍼드의 동료 교수이자 가톨릭 신자인 톨킨(《반지의 제왕》 지은이) 등과 성서와 신화를 주제로 나누었던 긴 대화를 통해 마침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루이스는 자신의 소명은 교회 밖(언저리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정 교파에 국한되는 교리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왔던 기독교의 정수-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를, 전문 신학 용어가 아닌 현대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생생한 언어로 표현해 내고자 노력했고, 그의 그러한 분투는 그에게 “회의자를 위한 사도”라는 별명을 안겨 주었다.

루이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조이’(Joy Gresham)다. 루이스보다 열여섯 살 연하였던 조이는 여러 권의 시집과 소설들을 발표한 미국 작가로서, 무신론자였으나 기독교로 회심하는 과정에서 루이스의 저술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재치와 지성미를 갖춘 여인이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던 루이스는 58세의 나이에 조이와 결혼을 하는데, 이때 조이는 이미 불치의 골수암에 걸린 상태였다. 4년만에 사별로 끝나고만 이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훗날 연극으로 만들어졌고, 그 연극 대본을 기초로 ‘새도렌

드’(Shadowlands)라는 영화가 제작돼 호응을 얻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기 위해 일기 형식으로 적었던 글인 〈A Grief Observed〉(홍성사 출간예정)가 루이스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가명으로 출판되었고, 루이스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날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잡지인 *Christianity Today*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저술가”로 주저 없이 루이스를 지목했다. 과연 무엇이 평생을 상아탑 속에서 고전에 파묻혀 살았던 이 영국 학자를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을까? 루이스의 글을 통해 ‘영원히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깨닫고 그를 흠모하게 된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에 있음을.

글● 이종태 · 번역가, 구리 두레교회 전도사, 〈고통의 문제〉〈순전한 기독교〉등 번역

C. S. 루이스에 바쳐진 찬사!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타임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 -크리스체니티 투데이

“루이스는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어거스틴”

-J. I.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자

“그는 20세기의 존 버니언”

-클린 두리스, 미국 IVP 편집자



이재철 목사의 청년 서신 2

참으로 신실하게

“청년들을 향한 애정이 이 책을 쓰게 했다!”

- '본질'의 회복을 촉구하는 이재철 목사의 청년 서신 그 두번째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1년 전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로 유럽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던 내용들이다. 물론 그간 세계 여러 곳의 장년들과도 같은 내용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었으나, 작년 가을 귀국하여 고국의 청년들을 만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청년들을 향한 애정이 더욱 깊어져 갔고, 그 애정이 나로 하여금 스위스에서 귀국한 후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들을 위하여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

-머리글에서

차례: 1. 말씀-그 절대성 2. 믿음-그 완전성 3. 구원-그 영원성 4. 삶-그 현장성

이재철 지음 | 믿음의 글들 191 | 변형A5신

장 바니에의 희망의 영성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

장 바니에가 들려 주는 참된 제자의 길

장 바니에가 들려 주는 영성 깊은 희망과 긍휼의 언어.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라르슈(L'Arche)의 설립자로, 헨리 나옴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바니에의 맑고 겸허한 영성에 감탄하게 되는 책. 함께 실린 라르슈 사람들의 사진이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이 책은 내게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갈수록 인간이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시대에, 인간 그 자체를 귀히 여기는 눈을 열어 주는 좋은 책이다.” -김병년/동안교회 청년7부 지도목사

장 바니에 지음 | 김은경 옮김 | 양정본

김서택 목사의 요엘서 강해설교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요엘서에서 찾은 참 부흥의 길!

대구동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서택 목사의 소신지서 강해 시리즈 호세아서(《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1,2》)와 오바다서(《가시 같은 이웃》)에 이은 세 번째, 요엘서를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날카롭게 진단하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재미있고도 뜨거운 그의 부흥론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저는 김서택 목사님의 설교를 대할 때마다 말씀이 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있는 삶이 뒷받침되는 설교이기에 또한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 목사님은 성경의 어떤 장이라도 그 본문을 흐르는 맥을 잡아내는 설교를 하기에, 솔직히 저는 부러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두/울산교회 담임목사

김서택 지음 | A5신

믿음의 글들 TOP 20

1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재철	7,000원
2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12,500원
3	2주 동안 배우는 사도신경학교	임영수	6,500원
4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8,000원
5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7,000원
6	회복의 신앙	이재철	7,500원
7	새신자반	이재철	9,000원
8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홍	6,000원
9	우짜무라 간조 회심기	우짜무라 간조	11,000원
10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수잔 맥콜리	7,000원
11	회복의 묵회	이재철	7,000원
12	빛을 마셔라	김유정	7,000원
13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기도	유진 피터슨	8,800원
14	거북한 침대, 거룩한 침대	유진 피터슨	7,500원
15	침묵	앤도 슈사쿠	6,000원
16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1)	송인규	8,500원
17	복음서로 드리는 매일기도	유진 피터슨	8,800원
18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해경	6,300원
19	믿음의 글들, 나의고백	이재철	6,500원
20	책읽기를 통한 치유	이영애	5,600원

목회 • 설교 TOP 10

1	위대한 부흥의 불꽃, 이스라엘의 사사들(1)	김서택	7,900원
2	위대한 부흥의 불꽃, 이스라엘의 사사들(2)	김서택	7,500원
3	위대한 부흥의 불꽃, 이스라엘의 사사들(3)	김서택	7,900원
4	위대한 부흥의 불꽃, 이스라엘의 사사들(4)	김서택	6,900원
5	강해설교의 기초	김서택	10,000원
6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	김서택	10,000원
7	가시 같은 이웃	김서택	4,300원
8	요한과 더불어(여섯번째 산책)	이재철	13,500원
9	요한과 더불어(열번째 산책)	이재철	10,000원
10	대홍수, 그리고 무지개 언약	김서택	10,000원

어린이 TOP 5

1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맥스 루케이도	6,000원
2	토비아스의 우물	맥스 루케이도	6,000원
3	주머니 속에 꼬마성경(신/구약 전16권)	프랜세쥬 각권	1,600원
4	어린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	조성자 글/신기영 그림	6,500원
5	만화 성서대전(신/구약 전4권)	리비 위드 외	각권 4,800원

소설 • 메시지북 외 TOP 5

1	야훼의 밤 - 제1부 갈대바다 저편 (상)	조성기	4,500원
2	야훼의 밤 - 제1부 갈대바다 저편 (하)	조성기	4,500원
3	매일기도수첩	편집부	1,000원
4	비전의 사람(메시지북)	이재철	15,500원
5	야훼의 밤 - 제2부 길갈 (상)	조성기	4,500원

영국 'C. S. 루이스 협회'와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은 유일한 한국어판!

고통의 문제 *C. S. Lewis*

고통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한
명징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기독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고뇌해 온 이 하나의 의문에 대한
명징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고통에 관해 사색하는 이 시대 사상가들이 공히 찬탄하는 고전(古典)!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고 힘있게 쓴 책” -*Times Literary Supplement*
“한 권의 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칭송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고통의 문제>
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Guardian*

C. S. 루이스 지음 | 이종태 옮김 | 믿음의 글들 189 | 변형A5신 | 248면 | 양장 | 9,000원



지금까지 나온 定本 'C. S. 루이스 클래식'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영적 전쟁과 유혹에 관한 놀라운 통찰.
“탁월하고, 활기 넘치며,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책!”
-옵서버誌(*The Observer*)

김선형 옮김 | 믿음의 글들 176 | 변형A5신 | 208면 | 양장 | 8,000원



순전한 기독교

타임誌가 극찬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
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인 필치로 변론한
가장 뛰어난 책!” -알리스터 맥그래스

장경철 · 이종태 옮김 | 믿음의 글들 186 | 변형A5신 | 352면 | 양장 | 12,500원

직원모집 _ 편집부 직원(경력)을 구합니다!

- 응시자격: 단행본 편집 경력 2년 이상 된 그리스도인
- 구비서류: 자기소개서(A4 3매 이상), 이력서(사진 미부착 바람)
- 접수방법: 이메일(editor@hsbooks.com) 또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접수마감: 2002년 4월 6일(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 보낼 곳: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주)홍성사 편집부
(봉투 겉면에 “편집부 지원”이라고 쓸 것)